

[재무상태표]



자본항목을 보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총 발행주식수 x 1주당액면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000주를 유상증자할 경우 모집(매출)가액을 9,000원이라 하면 모집(매출)총액은 9백만원(1,000주 x 9,000원)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자본금은 5백만원(액면가 5,000원 x 1,000주) 자본잉여금은 4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말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 유상증자, 공모 등을 거치면, '자본잉여금'이 발생함.

다시 재무 상태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²⁾ '이익잉여금' 이런 녀석이에요. 현재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익잉여금은 '기업에서 손익이 발생하면 이러한 손익들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차곡 차곡 누적해서 쌓아놓는 커다란 금고'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기업의 누적손익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크면 좋겠죠!? 한편, 기업이 1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얼마를 벌었는지를 나타 내는 지표가 '손익계산서'라고 했습니다. 이익잉여금과 이 손익계산서 사이에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다리(bridge)'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설명해볼게요.

기업에서 어떠한 거래가 발생되면 회계상으로 각종 숫자들을 입력하겠죠. 당연히 그 회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이렇게 매 거래에 의해서 변동되는 숫자들을 입력하는 행위를 '전표 투입한다'라고 한데요. 전표 투입을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상의 맨 마지막 항목으로 있는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 상의 '보이지 않는 다리'를 통해서 쪽 이동되어서 종국에는 재무제표 상의 이익잉여금이라는 금고 안으로 착!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 손익계산서는 시스템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은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의 결과 축적된 이익으로 사내에 유보된 부분이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연결시키는 항목으로 수익과 비용의 집합인 손익계정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고 당기순손실은 이익잉여금을 감소킨다.

· '이익잉여금'이 와이너스가 되면, 이를 '결손금'으로 표시한다.